

조계사 일요법회 중계

청화 스님 (조계종 前교무원장)

“고통 느낄 때는 자성에 귀 기울이자”

‘화초도 열매를 맺으면 시들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를 맺으면 마른다.’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이는 그로 인해 해를 입는다는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를 여의고 깨달음으로 가는 8만 4천개에 달하는 방편을 설하셨다. 수많은 방편에도 그 근본은 하나. 바로 청정자성에 귀 기울이는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었다.

10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 조계종 前 교무원장 청화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을 대중에게 누차 강조했다. 스님은 《채찍의 경》에서 나온 네가지 준마의 경우를 들며 사람도 고통의 소리를 들을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법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는 3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에 따른 삶을 살기를 서원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바야흐로 바람결 소슬한 가을입니다. 걱정의 날들은 다 갔습니다. 이제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자세를 고쳐 앉아서 가을의 결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이 여러분들에게 허무한 가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심에 대한 공덕을 두 가지로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철갑옷입니다.

어떤 장수가 전쟁터에 나서며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철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빗발치는 화살들에도 철갑옷으로 인해 화살들은 장수의 몸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 예리한 화살들이 장수를 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철갑옷 때문입니다.

그 장수 자체를 보면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무쇠와 같은 몸을 지니거나 신통술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화살이 장수의 몸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지만 철갑옷이 그 화살을 막아준 것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애심을 발휘하며 수행할 때 우리 인격의 덕이 쌓여 외부의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는 동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 동굴이 보여 그 사람은 얼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퍼붓는 비에도 동굴 안의 그 사람은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았습다.

이 사람이 비를 맞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 자체가 비를 맞지 않는 몸이 아닙니다. 비를 맞지 않는 도구를 지닌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를 맞지 않은 것은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이 비를 맞지 않게끔 보호해 준 것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애심을 잘 행하면 그 공덕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피하게 해줍니다.

철갑옷을 입고 화살을 맞지 않는 것, 동굴에서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은 이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특정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애심을 실천한 공덕이 있는 이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갑옷과 동굴을 자애심의 공덕으로 비유했다면 화살과 폭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고통이나 재앙, 불행입니다.

이런 고통이나 재앙, 불행의 근본을 제거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공덕도 없습니다.

목마른 이는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됩니다. 이는 물을 마신 공덕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이는 밥을 먹은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은 고통을 여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공덕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근기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란 먼저 구체적인 선행을 말하고 그 다음, 선행의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구경》에는 ‘잘못들은 자에게는 밭이 깊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부드러운 가르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엄경》에는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가르침 하나하나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오묘한 뜻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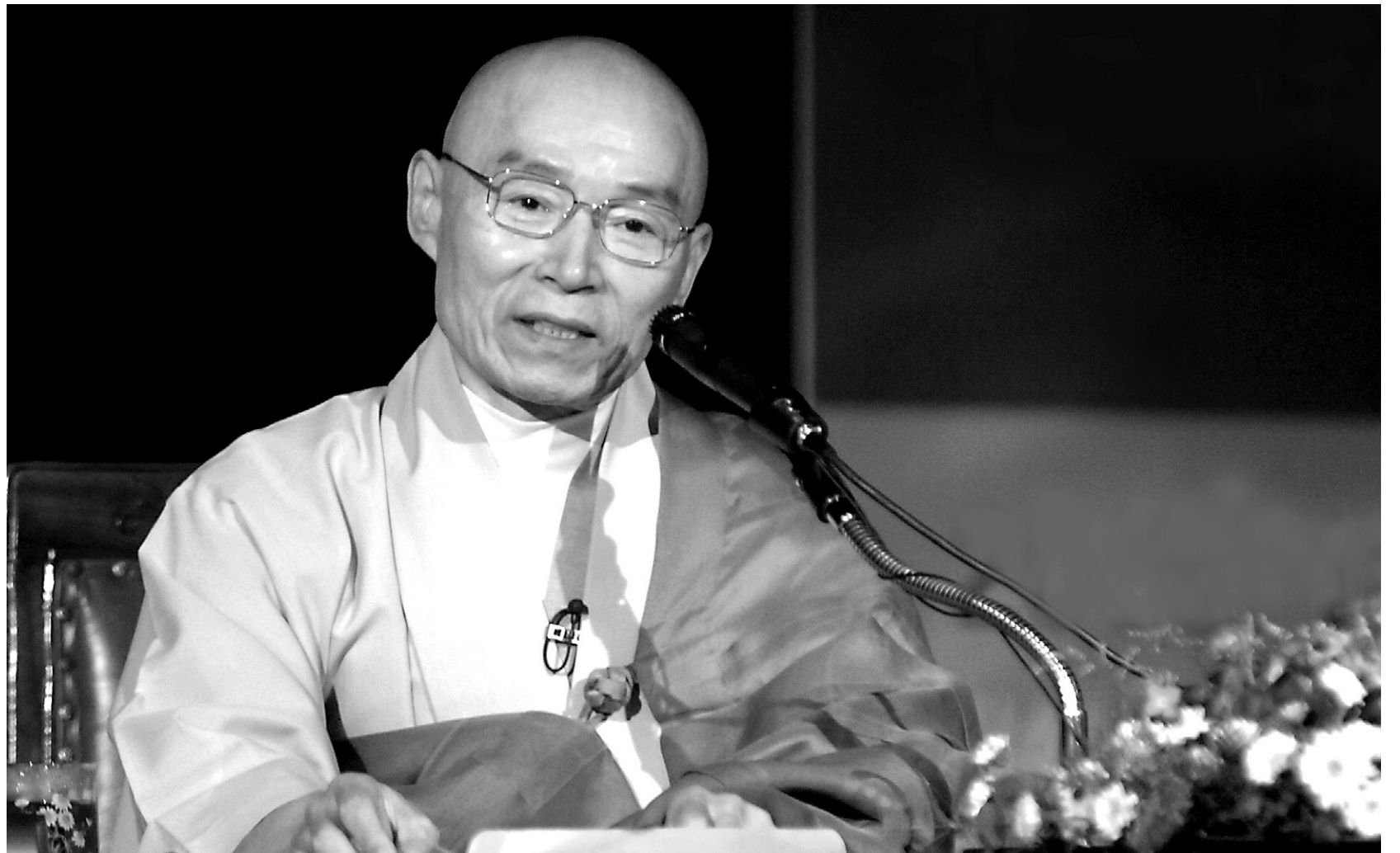
둘째는 거친 가르침입니다. 거친 가르침이란 구체적인 악행을 말하고 그 다음 악행의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화초도 열매를 맺으면 시들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를 맺으면 마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해를 입는다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런 말씀은 거친 가르침에 속합니다.

《현우경》에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스님들이 사는 거처에 자주 도둑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이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도둑은 스님들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를 훔쳐가곤 했습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평소 자애를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다. 하지만 도둑의 횡포가 계속되자 참다못한 스님들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들었을 때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기왓장을 들라. 같이 있으면 칼을 들라. 그러나 위협만 할뿐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도둑이 왔을 때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 어찌 도둑이 훔쳐가겠느냐’ 부처님께서

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칼을 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방법은 부드러운과 거친 가르침을 혼용하는



청화 스님은... 1962년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화 스님은 1981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사서,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초대 의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초심회계원장 등 재야 현장과 종단의 주요 소임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무원장을 맡아 승가교육체계를 정비했다.

자애심의 공덕은 화살 속 철갑옷 같아 공덕은 부처님 가르침 실천에서 나와 방편에 매이지 말고 근본에 눈 돌려 번뇌 가라앉히면 자연히 지혜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말하며 듣는 이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탐진치를 범하지 않음은 선행이며 이 과보로 장수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 탐진치를 범하면 악행이며 이 과보로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선행을 행하라는 하나의 내용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전개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근기가 다른 대중을 이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 아무리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 해도 모두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악하거나 머리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가르침은 무력합니다. 이러한 무력함은 그들의 결점만을 굳게 돼 결국 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거칠고 자극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불교를 예로 들면 궁극적인 목표로 극락만 얘기해도 되고 성불만 얘기

해도 되고 해탈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못 쓰고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결과를 말해주 본인의 행동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하거나 장미의 가시가 찌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보다 강한 돌이나 쇠붙이로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고 찌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원리입니다. 사람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까닭에 사람을 교화하는 가르침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심에는 괴로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괴로움에 행복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가르침의 중심에 놓고 인식변화와 대응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 대한 약방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는 괴로움을 채찍으로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채찍의 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네 가지 고귀한 열등의 준마가 등장합니다.

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벌써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준마입니다. 다른 한 말은 채찍을 받고 털에 상처를 받아야만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빠르게 달립니다. 또 다른 한 말은 채찍을 맞고 살점에 상처가 나야 만이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빠르게 달립니다. 나머지 한 말은 채찍을 맞고 뼈에 상처가 나야 만이 그때서야 조련사의 마음을 알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 상처가 나고 아픕니다. 채찍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종류의 말을 사람에도 비유하십니다.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준마는 상근기의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 남자나 여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타성에 젖은 삶에서 각성한 삶을 삽니다.

만약 출렁여 잔을 넘치려는 물을 보면 우리는 그 물의 출렁임을 멈추게 하려 할 것입니다. 물의 출렁임을 없애려면 먼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 출렁임을 없애면 이물질이 가라앉습니다. 이 물질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물도 맑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의 출렁임을 찾아 없애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출렁이게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할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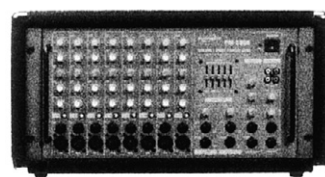
주·야 상담 합니다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디스크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20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원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